

채용공고 데이터 기반 적정 임금 예측 및 다국어 근로조건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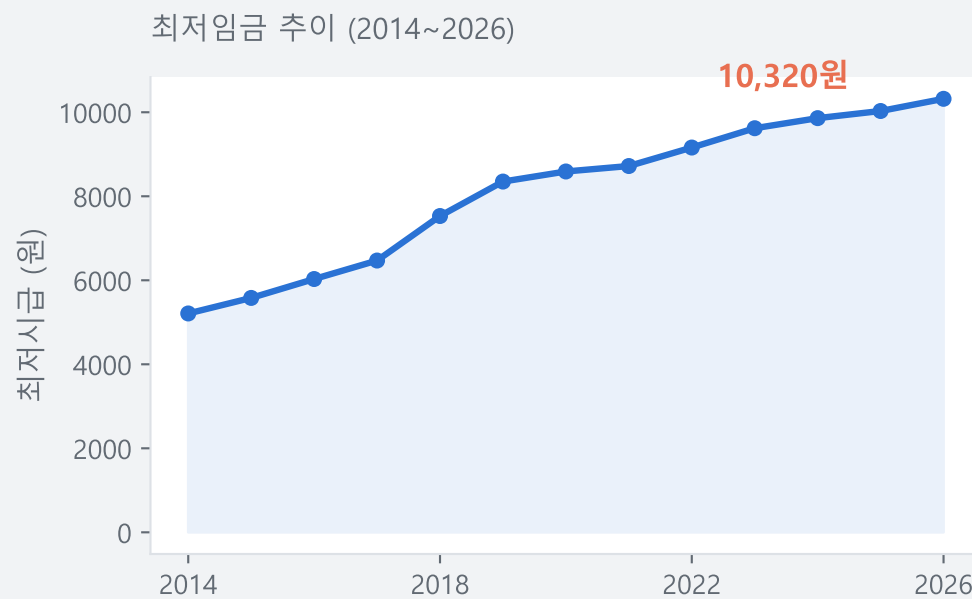
부산외국어대학교 AI 부트캠프 · 다국어 AI 에이전트 개발 중급과정

브릿지 포 · 김성빈 · 송금담 · 김서완 · 원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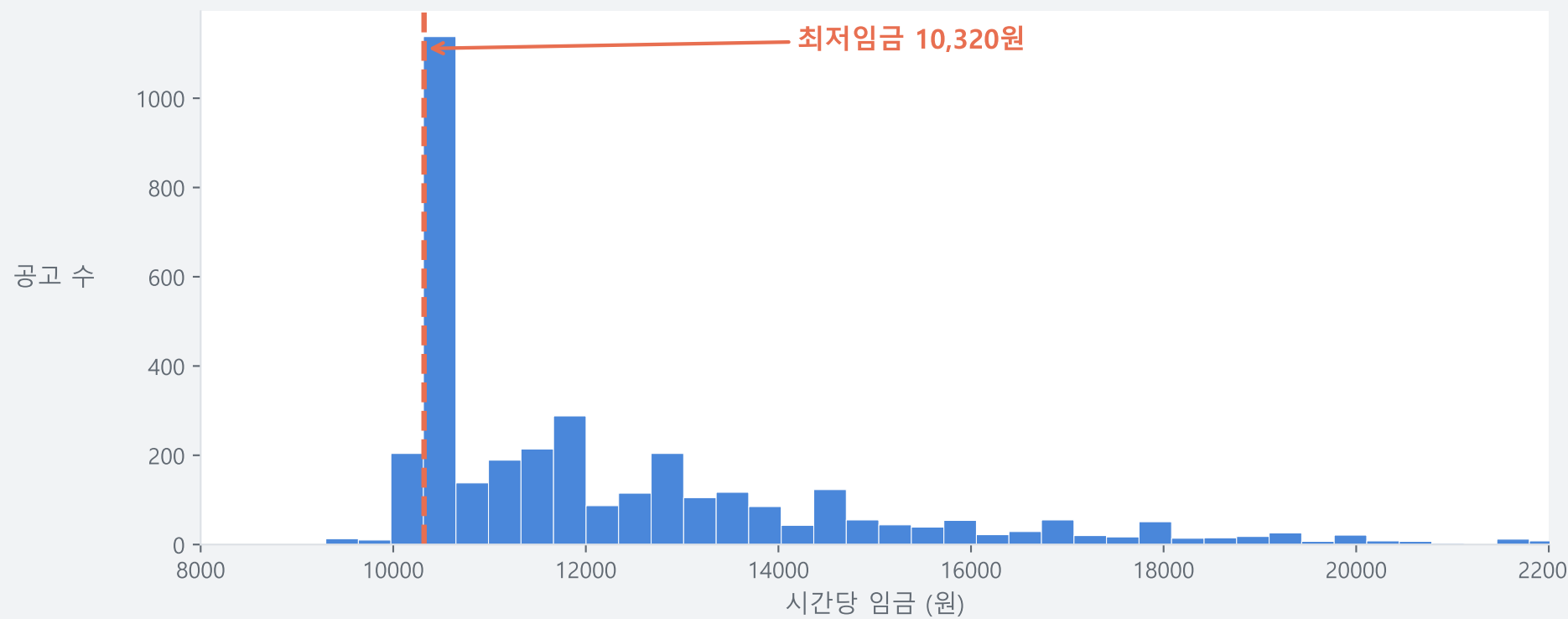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부산 지역 채용공고의 임금이 같은 조건 대비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국어 공고를 읽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는 근로조건 확인조차 힘들다.

임금 표기가 시급·월급·연봉으로 뒤섞이고, "회사 내규에 따름" 같은 모호한 표기가 섞여 있어 구직자가 스스로 비교하기 어렵다.



6 핵심 결과 — 최저임금 밀집



공고 4건 중 1건(24.6%)이 최저임금에 정확히 걸린다

전체 중앙값 11,660원

2 데이터 수집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는 개인회원에게 차단되어 공개 웹 채용정보를 직접 수집했다.

저작권법 §94②1(교육·연구 비영리)과 robots.txt를 확인하고, 요청 간격 0.7~1.0초를 유지했다.

5,168

수집 공고

3,674

임금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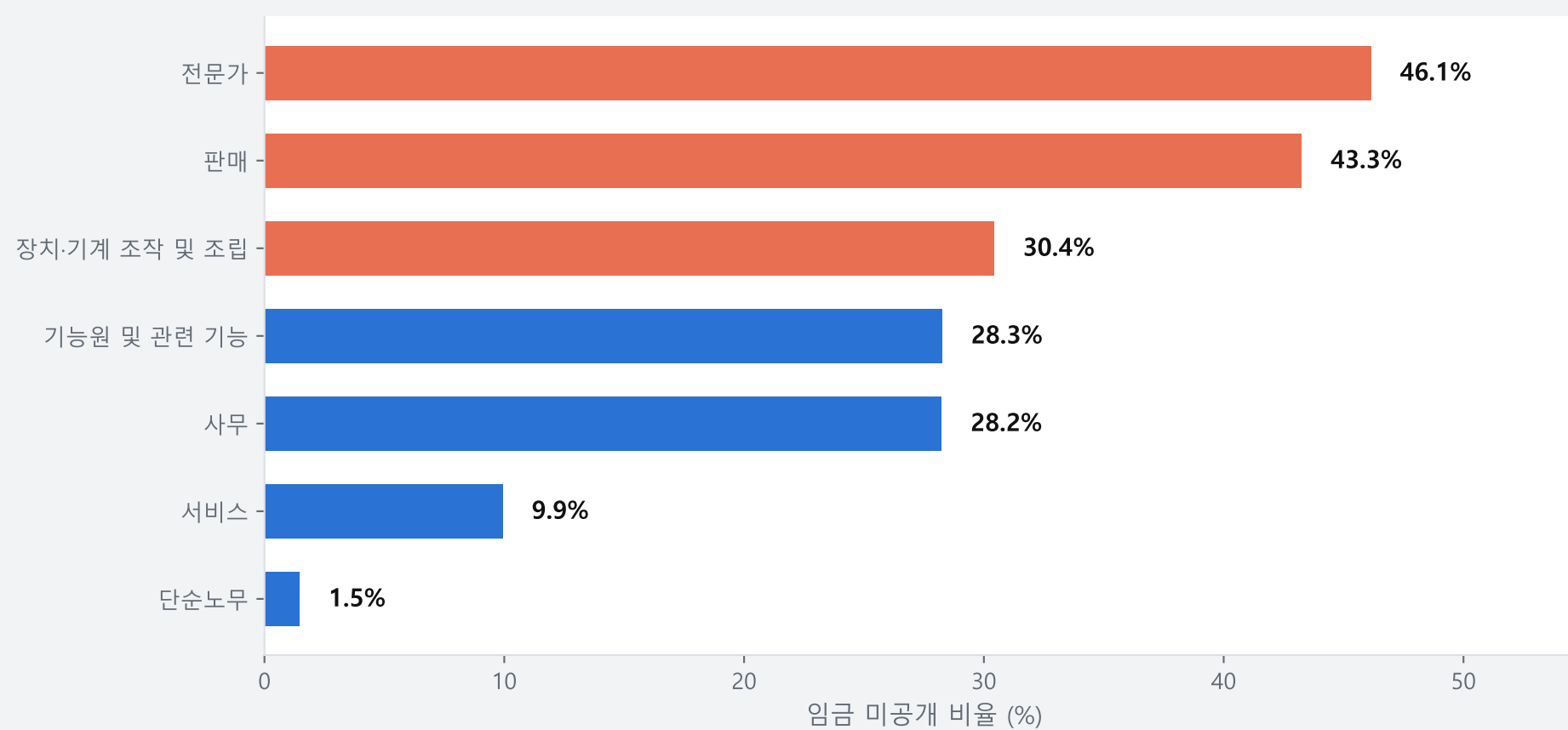
2개월

수집 기간

고용24 3,989건 · 알바몬 · 알바천국 1,980건 → 재게시 중복 제거 후 1,367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최저임금 고시 병행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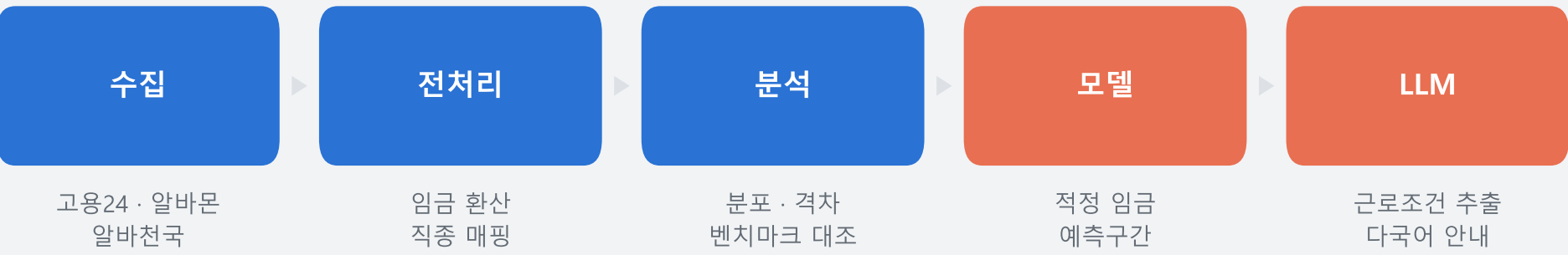
7 핵심 결과 — 임금 미공개

고임금 직종일수록 임금을 숨긴다 — 31배 차이
전문가 46.1% vs 단순노무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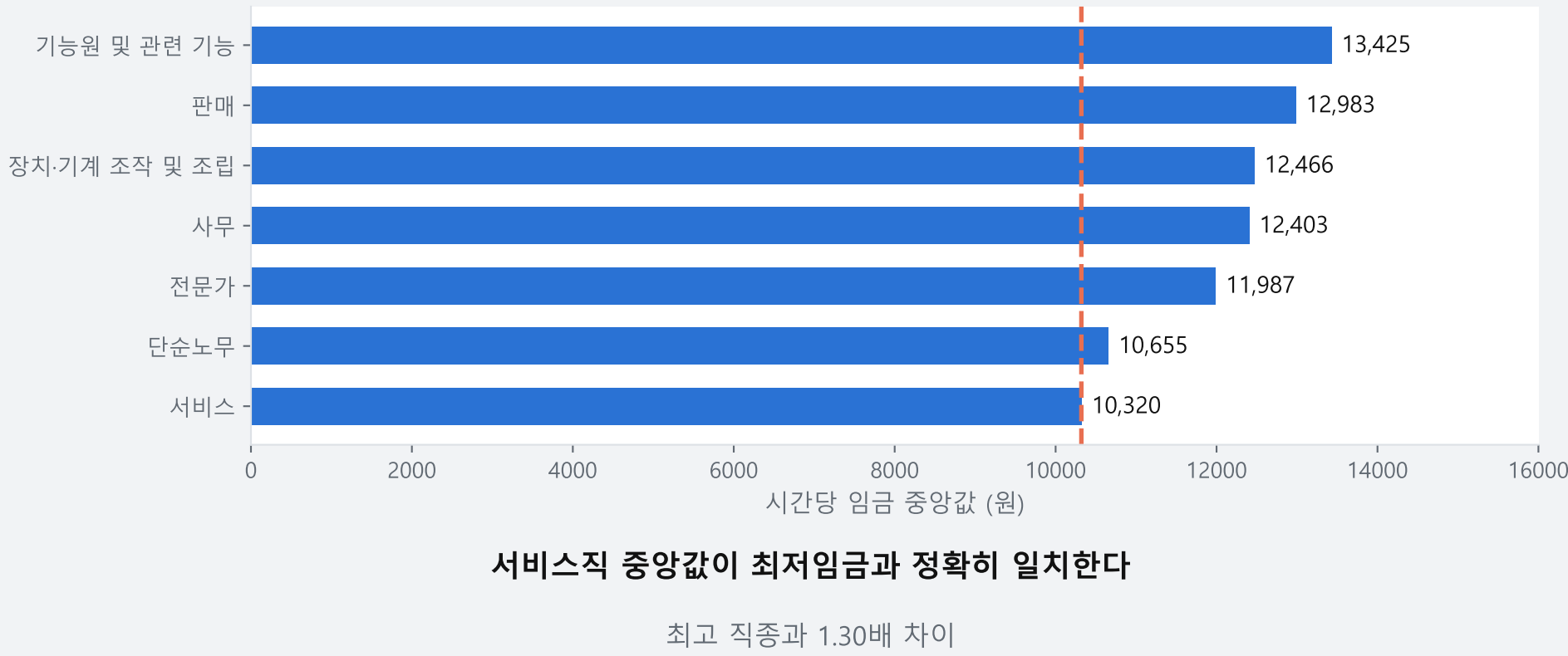


3 분석 방법

임금형태가 달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시간당으로 통일했다.
월급·연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유급시간(주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했다.



4 직종별 임금 격차



5 공공 vs 민간 채널

공공(고용24)과 민간(알바몬·알바천국) 공고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했다. 근무시간이 확인된 직접 환산분만 사용했다.

10,320원

공공 (n=1,171)

10,320원

민간 (n=644)

채널 간 차이 없음 — 둘 다 최저임금

9 고찰 및 한계

- 표본은 부산 노동시장이 아니라 공고 시장을 대표한다.
- 임금 미공개 26.0%는 회귀에서 제외되나, 어떤 공고가 숨기는지 자체가 분석 대상이 된다.
- 재직자 통계와 공고 초임은 성격이 달라 순위·분포로 해석했다.
- 민간 공고는 재게시 중복 31.0%(613건) — 회사 741개에 공고 1,980건. 비율 통계는 중복을 접고 냈다.
- 민간 본문 32.3%는 내용이 이미지뿐이라 텍스트 진단이 안 된다.

결론 부산 채용공고의 하위 4분의 1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채널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는다. 임금을 밝히지 않는 공고는 고임금 직종일수록 많다.